

KTX ‘승차권 전쟁’ 해소 숨통 트이나

용산-광주송정역 KTX 산천, 개통 10년 만에 상·하행 1편 씩 증편
운행 열차 1편 당 379석 규모·하루 총 758석 추가...17일부터 발권

호남선 광주송정역 KTX가 개통 10년 만에 하루 두 차례 증편 운행된다. <관련 기사 3면> 지역민의 ‘KTX 표 구하기 전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존 용산-익산 구간을 운행하던 KTX-산천 열차 4편 중 상·하행 각 1편씩(총 2편)이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이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첫 증편이다.

증편은 서울 용산-익산(서대전 경유)을 하루 오가는 KTX-산천 4편 가운데 상행 1편과 하행 1편을 광주송정역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다.

KTX-산천 열차는 1편당 379석 규모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총 758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

연장 대상은 야간 용산발 485열차와 새벽 용산(행신)행 474열차다. 485열차는 용산에서 밤 9시 9분 출발해 밤 11시 44분에 광주송정역에 도착한다. 474열차는 광주송정에서 새벽 5시 52분 출발 용산(행신)에 오전 8시 57분 도착한다.

아침 광주송정발 상경 수요에 ‘첫차 플러스’가 생기고, 밤늦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선택지도 넓어진다. 공항·도심 환승시간도 줄어든 전망이다.

이번 증편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실은 철

도공사와 수개월간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호남선 좌석난 해법을 촉구했다.

광주시 또한 지난 9월 23일 증편 촉구 결의대회, 10월 1일 시장-국토부 장관 면담, 10월 4일 지역사회 결의대회 등으로 힘을 모았다.

이번 증편이 뒤늦게 현실화한 이유는 기존 철도 정책의 기본 구조에 있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점인 오송역,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이 나뉘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송역에서 경부선 선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익산역에서 호남선이 광주 방향으로, 전라선이 남쪽으로 분기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호남선 하행 열차만 해도 하루 24회 정도가 운행되는데, 이 중 일부는 익산까지만, 일부는 서대전까지만 종점으로 설정해 각 지역의 기차표 구하기 여건을 적절히 배분하려는 의도였다.

익산은 전주, 전북 방면으로 가는 승객들의 승차 수요가 있고, 서대전은 중부지방으로 향하는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운행 비용과 회차 시간, 선로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행 편수를 결정해온 셈이다.

이번 증편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 심야 하행과 새벽 상행의 회송·정비 시간을 실좌석으로 돌리는 ‘단기 해법’을 먼저 실행한 셈이다.



9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승객들이 4시 59분 용산행 KTX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치권과 광주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실은 “다이어(열차운행계획) 개편, SRT와의 역할분담, 주말 증편, 출퇴근 시간대 좌

석확대 등 2단계를 국토부·철도공사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으로 광주송정 플랫폼 혼잡이 완화되고 공항·도심 환승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

결될 것”이라며 “초기 한 달 탑승률·지연을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도 선로용량 협의와 차량 배분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년까지 53~61%

주식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방안 마련”

고위 당정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

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사실상 당정이 민주당 의원인 25%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군공항 6자 TF 올해 안에 공식화”

김용범 청와대 실장 밝혀

타운홀 미팅 후 첫 공식 입장

5개월 넘게 공전하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6자 TF(테스크포스)가 연내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사실상 최종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1월 7일자 광주일보 1·3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답변한 데다,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

6자 회담이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군공항 이전의 큰 틀이 합의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을)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6자

협의체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범 실장은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과(실무) 대화를 하고 있다”며 “6자 TF를 공식화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6자 TF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의 ‘마무리 단계’ 발언은, 쟁점이던 무안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자 회담이 실무 조율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공식화하는 ‘상

결레 겹 합’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라고 질의하자, 김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부대양여 현행법 하에서 최대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수 갑질은 불법행위” 법적 책임 명시 ▶6면

전남 드래곤즈, PO행 희망 불씨 살렸다 ▶19면

복합문화공간 - 그라츠 현대미술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 Trade-in 프로그램
-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